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2



▶ 33회 예고
아쇼까는 첫 순행지로 베디사나가르로 삼는다. 부하들에게 비밀을 지키라고 엄명한다. 베디사데바는 미리 딸 데비를 보낸다. 그런데 농원에 도착한 데비는 하인들이 저택과 정원을 단장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아쇼까, 보고서와 편지를 보내다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다. 웃자인 반란군 진압작전의 전과와 관리들의 동향, 웃자인 사람들의 특성, 향후 통치계획 등의 순서로 보고서를 써내려갔다. 반란군 진압작전의 가장 큰 전과는 반란수괴를 생포하고 처형한 것이었다. 관리들은 반란군에 적극 협력하면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만 제외하고 모두 사면했으며, 특히 빠딸리뿌뜨라에서 파견 나왔다가 반란군에게 죽은 관리들의 시신을 찾아내어 상례(喪禮)를 갖추어 화장해 주었다는 것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웃자인은 상인들이 우대받는 도시인데, 성민들의 성격은 거칠고 부자상인 중에는 고기를 일체 먹지 않는 자이나교 신자들이 많다고도 썼다. 통치는 지방을 많이 순행하면서 빈두사라왕의 칙령을 알리는 데 힘쓰겠다고 맹세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을 불러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초안이니 빠진 사항이 있으면 보충해 보시오."

"군사주둔 문제를 건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선봉대장은 군사를 빠딸리뿌뜨라로 철수시키지 말고 웃자인에 계속 주둔하기를 바랐다. 웃자인의 반란군은 궤멸됐지만 아반띠국 남동쪽에 있는 깔링가국 군사가 침입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대장 말이 맞소. 진압군을 무기한 주둔할 수 있도록 건의하겠소."

선봉대장은 자신의 사견도 말했다.

"이곳 상인들은 꼬삼비의 상인들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다르오?"

"꼬삼비는 상인들이 왕궁이나 사원에 기부하는 전통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진압군이 머물렀던 고시따라마 사원은 고시따라는 부자상인이 건물을 지어 기부했다고 합니다. 꾸꾸따라마 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자인 상인 꾸꾸따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웃자인의 상인들이 인색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오. 왕이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는 등 갈등이 심했으니까 기부하지 않았을 수도 있소. 그래서 폭동이나 반란이 자주 일어난 것이 아니겠소?"

"세금은 왕을 흥하고 망하게 한다는 금언이 있습니다."

"그렇소. 세금징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지 않소."

선봉대장이 웃자인 상인들의 종교에 대해서도 말했다.

"부왕님, 웃자인 상인들 중에는 자이나교 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이나교도 상인들의 아랫사람들은 그들이 없는 곳에서만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몰래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고기를 먹는 자를 천한 사람으로 여겨 상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이한 일이오. 우리도 그들과 마주앉아 협상할 때는 고기를 먹지 않아야 할 것 같소. 하하하."

아쇼까는 크게 웃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보고서를 누구 편에 보내면 좋겠냐고 물었다.

"누구를 빠딸리뿌뜨라로 보내면 좋겠소?"

"부왕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소장은 따르겠습니다."

"진압군 군수부대 부대장을 부르시오. 그에게 보내겠소."

실제로 군수부대는 진압작전을 종료했으니 웃자인에 더 주둔할 필요는 없었다. 군수부대가 따라왔던 것은 진압군 군사가 행군해 올 때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제 군사를 움직이는 데 들어가는 물자조달은 아반띠국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이 물러가자 보고서를 보완해 다시 작성했다. 그런 뒤, 어머니 다르마 왕비에게 편지를 썼다.

〈보고 싶은 어머님께.

아쇼까는 어머님께서 기도해주시는 덕분에 인드라신의 가호를 받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웃자인은 한때 반란이 일어났던 성이었으나 위대한 마우리아국 군사의 힘으로 진압하여 지금은 평온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날 탁실라에서 경험한 대로 세금징수를 공평하게 하여 상인과 성민들의 불만을 없앤 결과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저를 잘 따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 빈두사라대왕님의 칙령이 아반띠국에도 구석구석 퍼질 수 있도록 순행을 자주 나가려고 합니다.

아버님이 들으시면 저를 신뢰하고 좋아하실 것입니다.

어머님. 동생이 태어났다면 이름은 무엇인지요?

아들인지, 딸인지 몹시 궁금합니다.

어머님 산후조리는 아상디밋따가 잘하고 있겠지요.

아상디밋따는 조용하고 착한 천품을 타고나 어머님을 친딸과 같이 잘 보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머님의 손자, 꾸날라가 보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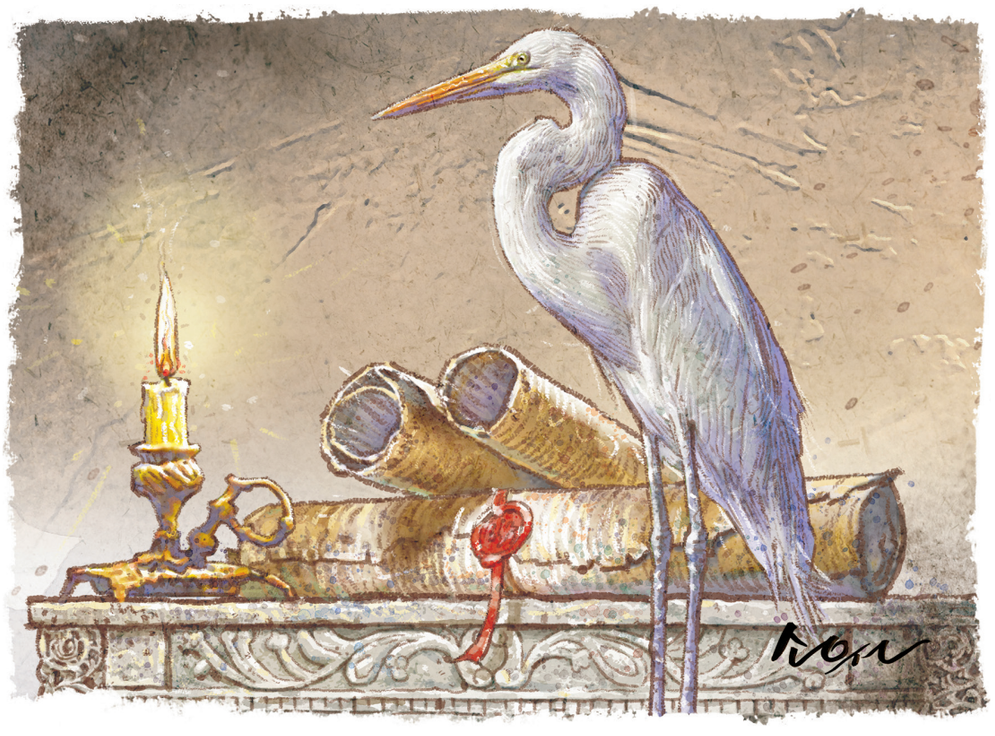
어머님의 아들 아쇼까는 어머님께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인드라신께 간절히 비옵니다. 아쇼까 올림.〉

아쇼까는 검은 물감뚜껑을 닫지 않았다. 뾰족한 나무 끝에 물감을 찍었다. 아상디밋따에게도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상디밋따여.

그대의 남편이자 마우리아국 왕자 아쇼까는 아반띠국 수도 웃자인에서 잘 지내고 있소.

그림자처럼 어머님 곁을 지키며 말없이 헌신하고 꾸날라를 친아들같이 보살피는 그대가 벌써 그립구려.



남편으로서 그대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한 채 서둘러 아반띠국으로 떠난 나를 이해하시구려.

아버님의 명이기도 하지만 마우리아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오.

오늘은 가네샤신이 원망스럽기도 하오.

그대에게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나는 더 없이 행복할 텐데 가네샤신이 우리를 찾지 않고 있기 때문이오.

착한 그대를 닮은 자식이 있다면, 가네샤신이 행운을 주신다면 나 아쇼까는 더 바랄 것이 없을 테니까요.

아상디밋따여. 나는 반드시 아버님께서 부여한 명을 완수하고 언젠가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 그대와 함께 있고 싶소.

그 생각만 하면 시프라강과 강가강을 날아다니는 물새처럼 꿈속에서라도 그대에게 훨훨 날아갈 것만 같소.

그대여, 내 걱정은 하지 마시오.

오늘밤 나는 그대에게 언제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겠소.

그대와 꾸날라를 보고 싶은 아쇼까 씀.〉

마침 두 통의 편지를 다 썼을 때 진압군 군수부대 부대장이 들어왔다. 아쇼까는 새삼 그의 공을 치하했다.

"대장이 군수물자를 원활하게 지원해 진압군이 웃자인까지 무리 없이 이동해 왔소. 마지막 공격 전날 전투코끼리와 군마들이 시프라강 강변에서 풀을 뜯게 한 것도 대장의 훌륭한 제안 때문이었소. 힘을 낸 전투코끼리와 군마들 때문에 진압작전은 성공할 수 있었소."

"공은 부왕님의 것입니다. 소장이 제안했을 때 부왕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부른 이유가 있소. 대장은 임무가 끝났으니 내일 즉시 웃자인을 떠나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가시오."

"예, 부왕님."

군수부대 부대장은 이유를 묻지 않고 명을 받았다. 사실, 웃자인에서는 할 일이 없어져 무료하게 보낼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다. 기마부대나 코끼리부대는 아쇼까가 순행할 때 호위를 하기 때문에 웃자인에 남아 있을 이유가 충분했지만 군수부대는 달랐던 것이다. 아쇼까가 말했다.

"이 보고서는 극비 문서이니 빈두사라대왕님께 대장이 직접 전하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 두 장은 다르마 왕비님과 아상디밋따에게 전해주시오. 가능하면 이 편지도 대장이 직접 전해주시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끼리를 잘 다루는 군수부대 부대장은 선봉대장 못지않게 충직했다. 나이는 선봉대장보다 많았지만 서열이 위인 선봉대장에게 한 번도 월권을 한 적이 없었다. 군사물자를 지원할 때는 반드시 선봉대장에게 먼저 보고하고 아쇼까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니 그에게는 적이 없었다. 다만 작전회의를 할 때, 그가 종종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다른 대장들의 눈총을 받곤 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뒤에서 아쇼까에게 그를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는 대장은 아무도 없었다. 군수부대 부대장이 보고서와 편지를 들고 나가려고 하자, 아쇼까가 불렀다.

"대장!"

"예, 부왕님."

"혼자 돌아가는 것은 위험하니 군사를 10명 붙여주겠소."

"아닙니다. 10명이 함께 움직이려면 적잖은 경비가 들어가니 2명만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오. 군사 2명은 대장이 선발하시오."

군수부대 대장은 바로 날랜 군사 두 명을 뽑았다. 모두 군수부대 소속이었지만 군마를 잘 타는 군사였다. 선발된 두 명의 군사는 환호성을 질렀다. 먼 훗날에나 빠딸리뿌뜨라로 돌아갈 줄 알았는데 당장 내일 떠난다고 하니 들뜨지 않을 수 없었다. 진압군 군사 중에 그들은 선택받은 행운아였다. 반면에 나머지 군사들은 풀이 죽어 고개를 떨어뜨렸다. 군사 중에 한 명이 말했다.

"이봐, 부러워할 것은 없어!"

"넌 객지 귀신이 되고 싶어 그래?"

"돌아가는 길이 꽃길은 아니거든. 길 위에 도둑이 있고, 살인더위가 있고, 병마가 있어."

"그래도 난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

"좋은지 나쁜지는 아무도 몰라. 쥐를 타고 다니는 가네샤신만 안다구."

그러나 선발되지 않은 군사 중에 한 명은 군막으로 돌아가 침상을 붙들고 울었다. 고향 짬빠성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 외양간에서 구물거리는 염소들이 보고 싶어서였다. 사실, 진압군으로 나오면 어느 세월에 고향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몰랐다. 병들어 객지에서 병사하는 군사들이 해를 넘길수록 속출하기 마련이었다.

아쇼까는 그날 밤 시프라강 모래밭을 군마를 타고 달렸다. 어머니 다르마와 아내 아상디밋따와 아들 꾸날라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서 어른댔기 때문이었다. 군마를 타고 한참 달리다보면 머릿속의 생각들은 텅 비워지고 군마를 탄 자신만 오롯이 남았다. 아쇼까는 반달이 중천에 떴을 무렵에야 군마에서 뛰어내렸다. 온몸이 소낙비를 맞은 듯 땀으로 흠뻑 젖었다. 아쇼까는 흰색 도티를 걸친 채 강물 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아쇼까가 왕궁에서 보이지 않자, 가장 놀란 사람은 경비대장이었다. 경비대장은 군사를 풀어 가까스로 시프라강에서 부왕 아쇼까를 발견했다. 경비대장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군사를 좌우에 배치하여 경계를 서도록 조치했다. 그런 뒤, 아쇼까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경비대장은 아쇼까의 심중에 가시처럼 박힌 외로움까지는 이해하지 못했다.〈계속〉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民衆醫術 민중의술

• 당뇨, 고혈압에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디스크,협착증 및각종질병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제 1편 치병편
제 2편 치료술
제 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 4편 수행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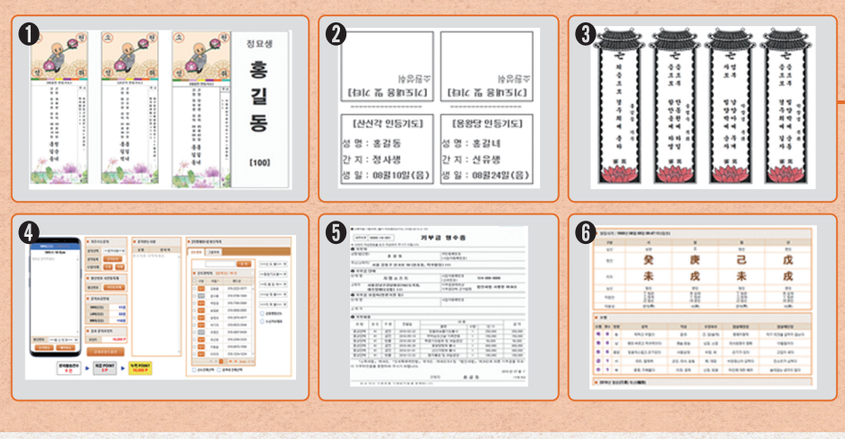


| 민중의술의 특징 |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 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GM SOFT since 2015 사찰신도 관리 프로그램

동종업계 최저가격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기본 19,800원 | 설치비 · 세팅비 전액무료



프로그램 주요 기능
❶ 연등표 출력
❷ 인등표 출력
❸ 위패출력
❹ 문자발송
❺ 기부금 영수증
❻ 사주팔자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지엠소프트 [지엠소프트]를 검색하세요
대표전화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평일 09:30 ~ 17: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www.gmst.co.kr